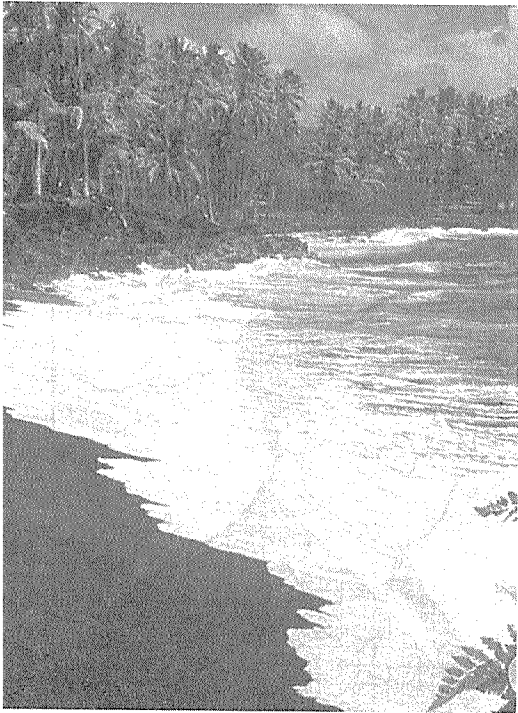


진짜 하와이 여행

김윤기



▲화산의 섬 하와이. 지금도 분화를 계속하고 있는 킬라웨어 화산으로 인해 섬 전체가 검정색이다. 해수욕장의 모래도 검다.〈하와이섬의 칼라파나비치〉

「빅아일랜드」란 이름의 하와이섬

흔히 하와이 여행하면 호놀룰루와 오후섬 일주가 고작이다. 그러나 이것은 진짜 하와이여행은 아니다.

하와이에는 8개의 큰 섬과 130여개의 작은 섬이 있다. 하와이는 남태평양 한복판에 있는 거대한 섬집단이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섬이 하와이섬이다. 호놀룰루가 있는 오후섬은 두번째로 큰 섬이다. 다음은 마우이섬, 카와이섬, 몰로카이섬, 라나이섬, 니아하우섬, 카홀라웨섬이다.

그러나 니아하우섬은 로빈슨씨의 개인 소유로 일반에게 개방이 되어 있지 않고, 라나이섬은 돌·파인애플회사의 소유로 섬 전체가 파인애플 농장이다. 카홀라웨섬은 無人島라 사람이 살지 않는다. 따라서 관광객이 구경할 수 있는 섬은 5개 뿐이다.

하와이의 섬들은 모두가 특징이 있다. 가장 큰 하와이섬은, 호칭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이곳서는 빅아일랜드(큰섬)로 부르고 있다.

하와이섬에는 지금도 불타고 있는 활화산 킬라위어가 있다. 산꼭대기에 오르면 직경 4.5km나 되는 거대한 분화구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분화 때문인가 무거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최근에도 화산이 터져 곳곳에서 김이 솟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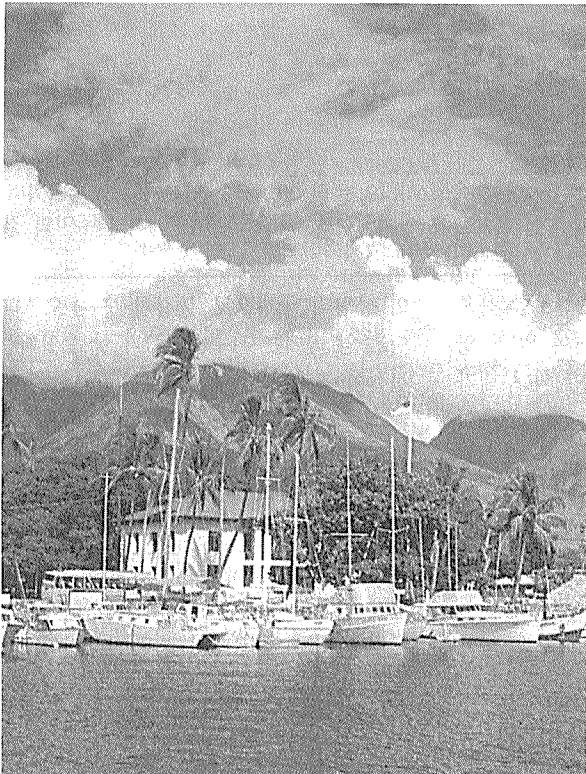
화산때문인가 섬 전체가 석탄처럼 검다. 바위도 검고, 내(川)도 검고, 해수욕장의 모래도 검다. 이 검은 섬에, 짓푸른 초원이 펼쳐지고 찬란한 꽃들이 피어 강렬한 색채의 풍경화를 노정하고 있다. 유난히 화원이 많은 것도 이 섬의 특징이다.

오다화원, 히로세화원, 콩구화원이 있고, 난(蘭) 재배로도 유명하여 난의 섬(오%드 아일랜드)이란 별명도 가지고 있다. 그런

가 하면 지구상에 오직 이 섬에 밖에 없는 이상한 마카데미아 농장이 있다. 땅콩 비슷한 마케데미아는 그 특이한 맛으로 인기가 높다.

하와이섬에는 4천미터가 넘는 큰 산이 2개나 있다. 마우나로아산(4.172m) 일대가 하와이섬 최대의 관광 하일라이트다. 하와이화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분화구 바로 옆에 보루게이노하우스(화산의 집)가 있어, 이곳에서 식사를 하면서 화산 구경을 할 수가 있다. 이밖에도 공원박물관, 화산관측소, 유황의 언덕 등 화산과 관계되는 기관과 구경거리가 있다.

무지개폭포와 야자수로 둘러싸인 음산한 칼라파나 흑사해안도 구경거리다.



◀ 카메하메하대왕의 하와이왕국. 수도가 호놀룰루로 옮겨지기 전까지의 이나라 古都 라하니나. 작은 항구도시지만 옛 유적이 남아 있다.<마우이섬>

庭園의 섬 카와이

카와이섬은 가든·아일랜드(庭園의 섬)이란 별명이 붙었다. 섬 전체가 깃푸른 수목과 황홀한 꽃, 열대식물, 비단잔디로 뒤덮여 지상의 낙원을 방불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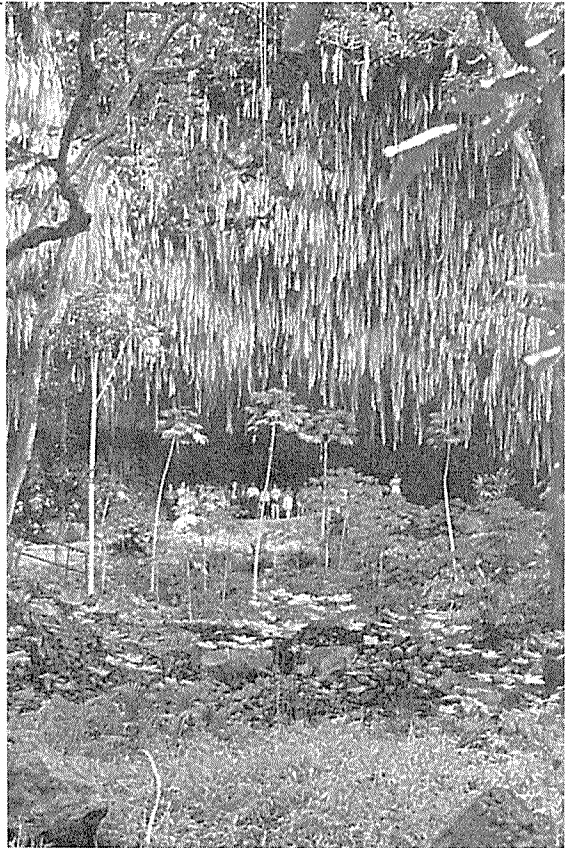
전설에 의하면 메네후네란 小人族이 살아「메네후네의 나라」로도 불리우고 있다.

카와이섬 최대의 도시 리훤은 인구 4천의 예쁜 도시인데, 이곳에서 유람선을 타고 와일루아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정글속에 시다의 동굴이 있다.

이 동굴에선 원주민들의 결혼식이 열린다. 하늘이 안 보이는 울창한 숲 속이지만, 이 숲에는 뱀도 없고 맹수도 없고 독충도 없다. 어쩌면 아담과 이브가 태어난 에덴동산이 바로 이곳인가 생각된다.

리훤에서 바닷가를 따라 62킬로쯤 북쪽으로 올라가면 루마하이 해변이 있다. 영화「남태평양」과「블루 하와이」의 무대가 되었던 곳이다. 섬의 남쪽에 있는 포푸이 해변은 피크닉 장소로 인기가 높은 해수욕장이다. 주변의 고딕풍 호텔들이 더욱 경관을 아름답게 한다.

콜로아의 남쪽에 있는 해안에는 스포우팅 혼(Spouting Horn)이란 이상한 용암이 있는데 파도가 칠때 괴상한 소리를 내며



▲전설속의 시다의 동굴. 와이루아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정글속에 신비의 동굴이 있다. 이곳에서 원주민의 결혼식이 열린다.<카와이섬>

이 용암의 구멍으로 불길이 솟아 오른다. 이 용암 속에는 괴수(怪獸)가 살고 있다는 전설이 옛부터 있다.

스토우팅 혼 가는 길에 작고 아름다운 쿠히오공원이 있는데, 쿠히오는 하와이王子로 미국 의회에 하와이 대표로 참가했던 하와이의 역사적 인물이다.

양탄자보다 더 포근한 잔디는 거의 섬 전체를 덮다시피 했고, 코케공원, 리케이트 공원을 비롯, 여러개의 골프장이 있다.

그런가 하면 그랜드캐년을 연상케 하는 험준한 와이메아계곡도 있다. 좁은 산길을 따라 오르면 전망대가 있고, 이곳에 올라가면 계곡과 산이 한눈에 들어온다.

그런데 여기서는 외상한 가스가 발생, 주의를 요하고 있다. 와이메아는 하와이를 처음 찾아온 캤틴쿵이 상륙했던 곳이다.

계곡의 섬, 마우이

마우이섬은 하와이왕 카메하메하가 하와이를 통일하고 호놀룰루로 수도를 옮기기 전 王都로 사용했던 라하이나가 있는 곳이다. 말하자면 하와이왕국의 고도다.

이 섬에는 계곡이 많아 「계곡의 섬」(벨리 아일랜드)로 불리운다. 마우이란 원래 半神半人의 낚시꾼 이었는데 바다에서 이 섬을 낚아 올려, 많은 사람들이 어업과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태양에게 시켜 섬이 가라앉지 않도록 했다는 전설이 있다.

마우이섬에서는 웅대한 이아오계곡이 최대 관광하일라이트다. 땅덩어리가 갈라진 것 같은 절벽이 양쪽을 가로 막은 사이로 뱀처럼 계곡이 뻗어 올라가고 있는데, 입구에서 3.2km 지점에 있는 바늘과(이아오니들)은 절벽의 높이가 686m로 거창하다. 작은 섬에 이런 거대한 절벽이 있음은 신비롭기 그지없다.

하레아칼라국립공원은 사막처럼 된 둘레 33.6km의 분화구를 중심으로 펼쳐진 거대한 공원이다. 이 산에는 히말라야와 이곳 밖에 없다는 은검초(銀劍草)가 있는데, 마치 은빛 칼날같은 잎과 진한 보라빛

오하우섬 외에 하와이 섬, 카와이섬, 마우이 섬 정도는 돌아봐야 진짜 하와이 여행!

꽃이 핀다.

마우이의 행정도시는 와이루쿠다. 하와이 말로 와이는 물, 루쿠는 피다. 카메하메하대왕의 군대와 마우이 섬의 카헤킬리왕의 군대가 이아오 계곡에서 전투를 벌여 이아오의 물을 피로 물들였다해서 이런 이름을 붙였다. 와이루쿠에는 옛날의 하와이 풍물이 많이 남아 있다.

이곳에서 서쪽으로 35km 떨어진 古都 라하이나에는 역사적유적이 많이 남아 있다. 지금은 소박한 인상을 주는 작은 항구 도시지만, 난폭한 선원을 감금했던 감옥유적도 있다.

하와이 여행은 오하우섬 외에 적어도 이상의 3개섬은 모두 보아야 진짜 여행이 된다. 오하우섬만 한바퀴 돌고와서 하와이 여행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필자 = 해외의학 교류회장 · 최신 여행 정보 발행인〉